

무주농관원, 무주사과 안전관리 강화

무주군 · 무주농협 · 구천동농협 등 4개 기관 맞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무주사무소(소장 주순호 이하 무주농관원)는 지난 24일 무주농관원에서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무주농협, 구천동농협과 무주사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PLS(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무주사과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적합이 발

생하는 등 관리강화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것으로, 이날 4개 기관은 무주사과 생산·유통과 관련된 효율적인 협력 방안과 안전관리 계획 및 일정 등을 논의했다.

무주사과는 무주군 농가수와 농산물 재배면적 대비 각각 16.4%, 16.1%를 차지하는 대표 특산물로, 2009년 지리표시 제6호로 등록돼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으나 무주농관원의 안전성

조사 결과 생산단계 부적합이 지속 발생(최근 3년 약 20%)하고 있고, 재배 특성상 사과에서 검출되는 잔류농약 성분 수가 많아 조사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농가도 있어 부적합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무주농관원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무주사과 생산 농업인 및 농협 담당자 사전 교육·홍보, 조사대상 선정 및 안전성 조사를 추진하며, 무주군 농업기술센터는 새해영농교육, 품목별 특화교육 시 농약안전사용 기준에 대한 교육시간 편성 및 부적합 발생 시 원인조사·조치에 참여한다.

또한 무주농협·구천동농협은 조사대상 선정·시료수거 시 합동조사, 사과작목반 교육·회의 소집 및 교육시간 편성 등을 담당한다. 이 모든 추진 상황 등은 4개 기관 공유하고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무주농관원 주순호 소장은 "2025년에는 사과 안전성 조사 물량을 예년보다 30%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적합 발생을 철저히 예방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산물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

무주군, 제도개선지원 · 홍보 등 다방면서 호평

무주군이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무주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계획의 적정성과 △사전컨설팅 활성화, △기관장의 적극 행정 관심도 등을 심사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 점 등이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은 △상·하반기 우수 공무원 선발과 포상,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등을 운영하며 일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힘써 왔

다.

2024년부터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비롯해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등 적극행정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황인홍 군수는 “적극행정이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무주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력이라는 생각으로 추진에 내실을 기했다”며 “무엇보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함께 제도개선과 지원, 홍보, 교육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평가한 결과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장수형 복지울타리 운영’ 3년 연속 ‘우수’

장수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이행 성과와 체감도 등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를 선정한다.

5개 항목과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상위 30%에 해당하는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62)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한다.

장수군은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속적인 적극 행정 추진 노력과 뛰어난 행정 역량을 다시 입증했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제도개선 노력 △기관장의 적극 행정 성과 창출

노력 △사전컨설팅 신청 및 처리 △공무원 인식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민간위원 평가 등서 높은 점수를 대부분의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민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 ‘장수형 복지울타리 운영’ 사업은 대표적인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손꼽혔다. 이 사업은 복지안전 울타리 행정마차, 행복우편 배달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적 은둔·고립 가구의 안부를 살피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평가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군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군민들의 지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진안고원길 이어걷기 회당 참여자 200명 돌파

6월 14일까지 1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안고원길 14개 구간 · 총 210km 걸어

진안군과 진안고원길 사무국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025년 ‘바이고서’(비탈 이는 고원길에 서다, 이어걷기 행사)가 연일 최대 참여 인원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바이고서’ 프로젝트는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14주간 매주 토요일마다 진안고원길 14개 구간 총 210km를 걷는 행사다. 첫 회차였던 3월 15일에는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약 190명이 참가했으며, 22일 진행된 2회차에는 약 250명이 출발지에 집결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나브로 치유’를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진안고원길 타투 스티커 채팅, 장화홍련로 이야기 듣기, 작은 관소리 음악회, 근대한옥 견학 등 마을 속 문화·역사 탐방과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은전숲에서 열린 관소리 공연 ‘시월가는 참가자들의 열빈 호응 속에 앵콜 무대까지 이어지며 큰 인기



진안군과 진안고원길 사무국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2025년 ‘바이고서’(비탈 이는 고원길에 서다, 이어걷기 행사)가 연일 최대 참여 인원을 기록하며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를 끌었다.

진안고원길 제2구간 ‘들녘길’은 마을 안길과 들판을 걷는 초보자 친화적 코스로, 마령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고 준비해 온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치

유되는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남은 행사에도 참가해 진안고원길을 완주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진안고원길 이어걷기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매 회차 출발지에 오전 9시까지 도착하면 되며, 진안반남원에서 오전 8시 30분에 카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 ‘2025년 무주 반딧굴 과학축전’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강)은 4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2025 무주 반딧굴 과학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축전은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과학과 문화, 놀이가 융합된 35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과학축전에서는 ‘알쏭달쏭 체험 부스’(12개), ‘반짝반짝 체험 부스’(12개), ‘무한상상 체험 부스’(11개) 등 총 35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시 바둑 로봇과 한판 승부 △3D펜으로 나만의 세계 만들기 △보드게임을 활용한 코딩 체험 △탄소중립을 위한 지구 배스킷 만들기 △지문 수사 체험 등이 있다. 학생들은 6개 이상의 부스를 체험하면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종이팩 · 폐전지

재활용품 집중수거 나서

진안군이 생태건강치유 도시조성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율을 높이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종이팩 및 폐전지 집중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음료수팩 등)은 최고급 펄프로 제작되어 100% 화장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일반 종이와 혼합 배출될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 별도의 분리배출이 필수적이다. 또한 폐전지는 종량제 봉투에 버릴 경우 소각시 폭발 위험이 있으며,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면 폐전지 속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